월요광장

전남대 지하신문 '녹두'(綠豆)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이제는 우리 지역 민주화운동 역사도 조금씩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40년이니, 반세기 가까운 시절의 회고를 통해 옛 역사를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1985년, 군부독재가 기승을 부려 양심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숨이 막혀 허우적거릴 때였지만, 우리는 결코 눈 감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80년의 투옥자들이 대부분 출소한 때가 83년, 그해 연말부터 홍남순 변호사를 회장으로 모시고 반독재 운동가들이 집결하는 5·18구속자협의회가 탄생했다.

숨죽였던 시민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85년에는 '광주 5월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창립되었다. 그때도 위원장은 홍변호사님이었다. 그 창립 선언문을 내가 썼던 기억이 난다. 시작 부분을 보자.

"인류 역사는 폭압과 강제의 무도한 지배층에 항거하여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기 위한 기나긴 싸움의 장정이었다. 80년 광주의 5월 민중혁명은 동학혁명, 4·19혁명과 함께 부정과 부패, 탄압에의 위대한 거부를 통하여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혁명적 민중항쟁이었다…" 5·18 민중혁명의 뿌리가 동학혁명에서 자라났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내용이다. 그렇다. 조선 5백 년의 역사에서, 동학운동은 민중혁명의 요건을 갖춘 대표적인 민중항쟁이었다.

70~80년대 이후 전남대에서 전개된 민주화 투쟁의 정신적 투쟁 이론은 언제나 동학혁명에서 찾았고, 그런 동학의 혁명정신이 투쟁과 항쟁의 이론적 배경이었음을 그 당시 투쟁가들은 기억할 것이다. 동학혁명 정신이 구체적으로 학생운동에 접목된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 그 하나가 바로 1971년 가을 전남대에 뿌려졌던 '녹두'(綠豆)라는 지하신문이었다. 그 무렵 대학가에는 대학의 병영화에 결사반대하는 '교련 반대' 시위가 요란했다. ROTC(학도군사훈련단)와 교련으로 학생들을 묶어 두며 대학을 병영화하려던 책동에 거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던 무렵, 동학혁명 정신으로 군부독재에 항거하자는 녹두지(綠豆紙)의 창간사는 전남대에서 가장 강렬한 교련 반대 투쟁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창간사의 제목부터가 과격했다. '동학(東學)의 투혼(鬪魂)으로 민족·민주(民族·民主)의 횃불을!'이라는 제목에 "이 산된 민족을 모으고 학대받는 민중을 일으켜 새로운 민족사를 창조하려는 역사적 진운은 창세기 직전의 용트림처럼 성숙해 버린 혁명 전야의 한반도 하늘 아래다. 목 메인 향수처럼 우리는 오늘을 만들어 왔고 오늘을 기다린 바 있다"라고 서두를 꺼내고, "조선농민운동사 최후의 자랑이요, 역사의 진운이던 저 동학혁명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주의의 위대한 창시자, 녹두 전봉준 선생의 불같은 투혼을 상기하자. 조선 5백 년 역사에서 동학혁명의 위대한 교훈과 웅장한 민족혼이 없고서야 그것도 역사라 하였을 건가!"라는 논조를 펴서 동학정신으로 가혹한 군부독재의 쇠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때 나는 대학원생이어서 창간사만 써주었을 뿐 실제로 제작하여 뿌린 사람은 후배 학생들이었다.

그 시절 송정민(전남대 신방과 교수)과 고재득(성동구청장 4선) 등 많은 학생들은 혹독한 수사를 받았고, 모두 퇴학당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버티며 나를 거론하지 않아 그때 나는 무사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그렇게 끈끈한 의리로 뭉쳐서 살았었다. 녹두지는 전남대 학생운동사에서 동학과 학생운동을 접목시켜 주는 역할을 했고, 72년 유신 직후 뿌려진 '함성'이라는 지하신문의 모태가 되었다. 김남주·이강 등 혁혁한 민주투사들은 함성지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전사와 투사로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이뤘다. 고인이 된 김남주 시인은 혁명 시인으로도 유명하다.

녹두지의 전체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하는 '기억과 전망' 2017년 여름호에 모두 수록되어 그때의 투쟁 역사를 자세하게 읽을 수 있다. 송정민 교수와 고재득 청장 등은 의리를 지킨 나의 대학 후배들이고 김남주·이강 또한 나의 대학 후배들로서, 그들의 민주화운동 업적은 세상에 빛나는 혁혁한 투사의 위치에 올라 있다. 이 나라 정신사에서, 민족·민주 투쟁 역사에서, 녹두 전봉준 장군의 혼은 너무나 위대하다.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 '인내천' 등의 정신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혼을 어디서 찾겠는가. 그래서 '녹두'는 두고두고 거론될 지하신문이다.

기 고

'관광 광주' 스토리텔링이 답이다

조 현 희
광주도시여행청 대표

필자는 광주에 사는 게 대체로 만족스럽다. 특히 요즘같이 금남로 일대가 노란 단풍잎으로 물들 때면 도시가 참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시사철 무등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공기도 좋고 문화전당의 잘 가꿔진 도시 정원에서 풍기는 꽃향기도 좋다.

그만큼 도시 경관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잘 가꿔진 도시 경관은 훌륭한 관광 상품이기도 하다. 해외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면 대부분 도시 경관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잘 계획되어 있다. 해방 후 광주시장으로 부임한 미군정청의 디론 소령은 사직공원에서 광주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광주를 "숲에 덮인 아름다운 도시"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무채색의 삭막한 도시 경관뿐이다. 필자가 광주시장이라면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100년 프로젝트로 경양방죽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경양방죽은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광주의 화(火)기를 다스리는 비보 풍수로도 역할을 했다.

유명한 풍수학자는 "광주에 경양방죽이 있었다면 광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반 도시가 됐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스토리는 관광 측면에서도 효용 가치가 있다. 풍수라는 동양 사상을 접하지 못한 서양인에게는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이 복원 이야기를 하면 열이면 열 그 어마어마한 복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며 헛된 망상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유럽의 도시들은 성당 하나를 짓는데 100년에 걸쳐서 짓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빈약한 도시 경관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애를 먹이고 있다. 보통 관광은 경관과 스토리로 이루어지는데 광주는 경관이 너무나 빈약하다.

광주를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도 없고 특이한 자연 경관도 없다. 그래서인지 다들 광주 관광에 대해서는 "광주에 뭐 볼게 있다고?" "광주는 뭘 해도 관광은 힘들어!"라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기죽을 필요가 없다. 광주의 경관은 빈약하지만 스토리가 아주 풍부한 고장이다. 스토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숭고한 행위나 특이한 행적, 관습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광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사람들이 위대한 도시다.

조선 시대로 올라가면 퇴계 이황과 학문적 논쟁을 벌인 대유학자 고봉 기대승 선생이 있고, 용맹함이 신출귀몰하여 여러 설화를 낳은 임진왜란 의병장 김덕령 장군도 있다. 그뿐인가. 중국에서 혁명음악의 대부로 추앙받는 정율성 선생 역시 광주 출신이며, 양림동 태생 정추 선생은 검은 머리 차이콥스키로 불리며 카자흐스탄 음악 교과서에 그의 작품이 60곡이나 실릴 정도로 천재 음악가로 명성이 높다.

이밖에도 국어 교과서에 여러 편의 시가 실린 김현승 시인이 광주에서 활동했으며, 미인도로 유명한 천경자 화백도 전남여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무엇보다도 광주는 민주 열사들의 도시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광주는 광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관광지 조성에 힘써야 한다. 주어진 관광 자원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기획에만 그치지 말고 과감한 재원 투자와 발상 전환으로 스토리가 남아 있는 곳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광 정책을 바꿔야 한다. 광주의 이야기를 건축물과 조형물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관광진흥과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광 도시로 앞서가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 부서를 기관의 제1부서로 우대하고 있다.

관광도 사람이 하는 일, 광주 사람의 위대함을 이제는 관광 정책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기 고

'토적성산'의 자세로 산단 활성화를

김 영 헌
광주시 북구 경제문화국장

중국 전한 시대 학자 유향은 '수적성천(水積成川) 즉교룡생언(則蛟龍生焉), 토적성산(土積成山) 즉예장생언(則豫樟生焉)'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물이 모여 천을 이루어야 교룡이 살 수 있고, 흙이 쌓여 산이 이루어져야 좋은 재목이 자랄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농사에 기반을 뒀던 빛고을 광주는 현재 호남권의 주도(主都)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타 지역보다는 열악한 생태계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행히 북구 오룡동 일원에는 지역민의 요구와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1998년에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1단계 공사가, 2012년에는 제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1000여 개 기업과 20여 개 지원 기관이 입주하여 1983년에 준공된 본촌 산업단지와 함께 광주의 경제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입주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 세계 경제 위기 등 많은 위험 요인 속에 처해 있다. 그런 와중에도 지역 경제를 위해 오롯이 버텨 주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거기에 근로자들의 땀방울로 맺어진 소금꽃 속에 성장해 온 산업단지는 점차 노후화되면서 도로가 패여 첨단 부품은 운송 과정에 불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인도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민선 7기 구정 방침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24일 북구경제종합지원센터를 첨단 1지구와 본촌 산단의 가운데 위치한 첨단 2지구에 개소했다. 개소 1년이 지난 지금, 이 센터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고 근로자 정주 여건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국·시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첨단 산단 미세 먼지 차단숲 조성, 완충 녹지 활용 산책로 및 주차장 조성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노후화된 본촌 산단은 지난 6월, 485억 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산업 업종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4차 산업 융합 미니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한편 GIST, 광주R&D특구, 광주테크노파크 등 15개 지원 기관과의 산학연관 교류협력 업무 협약을 맺어 북구만의 특성화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처음 센터 개소 후 멀찍이 떨어져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으로 여기는 시선도 있었을 것이며, 기업들도 이제껏 그랬듯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센터에서 500여 회가 넘는 기업체 방문과 300여 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처리하면서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산단에 입주한 지원 기관 또한 응원과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있다.

기업은 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 기관은 기업에게 R&D를 지원하며, 북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삼박자가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구는 토적성산의 뜻을 가슴에 담고 '기업 성장 지원단' '작업 환경 개선 사업' '해외 시장 개척단' 등 새로운 흙을 묵묵히 쌓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이 모든 노력들이 조금씩 쌓여 큰 산을 이루게 되고, 근로자들의 소금꽃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행복 북구'로 귀결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社 說

광주시 맥쿼리에 부당 지급 혈세 환수해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협약을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인 맥쿼리에 유리한 조항에 동의해 118억 원의 혈세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일보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협약의 문제점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광주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 민자 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최소운영수입분 법인세 18억 원을 이중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맥쿼리가 전액 투자한 (주)광주순환도로 투자와 2004년 맺은 협약을 변경하면서 운영 방식을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에서 투자비 보전(MCC)으로 변경했다.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추정 법인세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는 방식에서 시가 실제 법인세를 보전해 주되 환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납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도 시는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해 2017~2018년 126억여 원을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 준 뒤 100억여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시가 MRG에 따라 이미 법인세를 보전해 주었으나 민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18억여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당시 협약이 시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발표가 허구였음을 말해 준다. 지난해 시가 지급한 재정 지원금이 오히려 32억 원이나 증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로 투자자와 재협상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부당하게 지급한 혈세를 즉시 환수하고 잘못된 협약을 재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금 감축 및 통행료 인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자질 의심스러운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광주·전남 지역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자질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실한 의정활동은 물론 의원 간 폭력 사태와 갑질 의혹 등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에만 해도 전남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박 6일 간의 관광성 해외 연수 일정을 제출했다가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심사위원회는 이들 의원들의 연수계획서가 공식 일정 없이 현지 문화탐방 형태의 관광성으로 짜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최근 '도의회 공무 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조례에 명시된 '45일 전 공무 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규정을 무시하기도 했다. 이들 여섯 명의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상임위의 유일한 타당 소속인 정의당 의원은 애초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결국 별다른 견제 없이 그들끼리 담합하는 구조에 따라 이뤄진 '퇴행적 행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곡성군의회에서는 최근 '수상한 돈 봉투' 행방을 놓고 여성 의원 두 명이 몸싸움을 벌여 빈축을 샀다. 이에 군의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상 조사와 결과에 따른 징계 약속 등으로 진화에 나섰다. 최근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목포시의원들의 '황제 독감주사' 사태도 논란이다. 의원들이 보건소 직원을 불러 독감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그것인데, 해당 의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일탈이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중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당 의원끼리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기류가 흐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지방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각 정당들도 앞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점괘

나라의 선량을 뽑는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입후보자들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된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혔다는 한 인사는 "지난번 선거 때는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엔 '출마하면 꼭 당선된다'는 점괘를 받았다"며 흐뭇해했다. 또 다른 후보는 "선거 때마다 측근들이 점을 봐 온다"며 "그동안 출마를 만류했던 측근들이 '이번엔 꼭 당선되니 선거에 나가시라'고 종용을 해 온다"며 싫지 않은 내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야기에 나오는 점쟁이들은 예전부터 '신통하게 맞힌다'는 소문의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하니까 후보들이 찾겠지만, 그 후보들 역시 매년 입후보자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점쟁이와 후보는 공생하는 관계'라는 설명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

점이 맞느니 틀리느니, 진짜니 가짜니 말싸움해 봤자 분명한 것은 없고 서로 감정만 틀어지니 '백해무익'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나마 분명한 것은, 점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어찌어찌하면 미래의 불행을 피할 수 있다"는 해결책도 제시되는데, 역시 '미래의 일은 누가 뭐래도 정해져 있다'는 믿음이 기본이다.

요즘 중국에서 '현대판 점쟁이'로 인기를 끈다는 자녀 유전자(DNA)검사 역시 '잠재 능력을 미리 발견해 아이들이 출발선에 설 때부터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홍보된다는 점에서 '미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믿음이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인다.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의 순환이 분명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에 익숙한 우리 아시아문화권에서, 점은 '과거와 미래는 이어져 있다'는 평범한 우주의 섭리를 비교적 잘 설명해 주는 가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

4개월 후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당선된다'는 점괘를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실히 살았던 과거가 보답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무리 점괘가 좋다고 해도 팥으로 메주를 쑬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